

비블리오드라마의 개념, 선구자들, 그리고 근본성격*

고원석(장로회신학대학교/교수)

wskoh87@gmail.com

한글 초록

본 논문은 최근 기독교교육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그 근본 성격과 핵심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 본문과 참여자들의 개인사 간에 전인적인 만남과 상호개방(발견)을 목적으로, 참여집단을 통해 성서본문을 극화한 과정중심의 학습방식”이다(알테베르트). 비블리오드라마는 역사비평학의 파산을 선고한 성서학자 윙크의 해석학적 노력에서 태동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은 뉴욕 생활 중에 성서를 신체활동을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신약성서학자 슈람은 TCI(테마중심의 상호작용) 운동에 깊이 주목하면서 성서연구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을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찾게 되었다. 한편 미드라쉬 전통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구현하고자 하는 핏젤은 유럽 비블리오드라마와 차별된 새로운 형태의 비블리오드라마(비블리오로그)를 개발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선구적 인물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신체성 - 상호소통(상호작용) - 성서 여백(빈공간)에 대한 탐구를 세 가지 근본성격으로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정리하자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신체를 동반한 참여자가 빈공간인 성서이야기를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극화된 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인적 해석과 체험, 치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학습이라 하겠다.

〈 주제어 〉

비블리오드라마, 미드라쉬, 성서교수학, 비블리오로그, 삼중구조.

* 이 논문은 2020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 들어가는 말

비블리오드라마가 국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는 불과 십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크론도르퍼(2008a)가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비블리오드라마 학자 및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편찬한 『비블리오드라마(원제: Body and Bible)』의 번역작업을 통해 비블리오드라마에 관한 다양한 이해와 논의가 국내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필두로 하여 시작된 비블리오드라마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두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첫째는 심리치료 및 상담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 상담(강희숙·이진현, 2019; 고강호, 2012; 김세준, 2009; 황현영, 2017)을 위한 역동적인 방법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가정의 심리적 문제(김세준, 2011; 정순선, 고강호, 2014; 이봉섭, 2015)의 치료와 해결을 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래서 독서치료(김현희, 2008), 놀이치료(최금례, 2018), 미술치료(박은미, 2012)의 영역에서도 비블리오드라마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영역은 기독교교육학 분야이다. 언어와 지식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기독교교육 및 성서교육의 새로운 방법론(고원석, 2016; 김희영, 2008; 손성현, 2010; 장순애, 2017)으로 점차 많은 교육실천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비블리오드라마 분야의 이론적 토대가 된 마르틴(2010)의 『몸으로 읽는 성서(원제: Sachbuch Bibliodrama)』와 비블리오드라마의 구체적인 사례와 지침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핏젤(2016)의 『비블리오드라마(원제: Scripture Windows)』가 국내에 번역 소개되면서 국내 비블리오드라마는 학문적·실천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마르틴의 여러번에 걸친 방한은 국내 비블리오드라마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 바 있다.

현재 비블리오드라마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비블리오드라마를 소개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문적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블리오프라마가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에서 유래한, 또는 변형된 형태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은 비블리오프라마에 대한 너무 좁은 이해에 속한다(Kronendorfer, 2008b, 81-82). 그런 점에서 연구자는 지금이 비블리오프라마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비블리오프라마에 대한 규명은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하나는 비블리오프라마의 내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블리오프라마의 외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비블리오프라마의 외적 규명이란 비블리오프라마가 공유하고 있는 심리극, 연극, 신화, 문학 등과의 대화를 통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심리극, 연극, 신화, 문학 등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서로 간의 논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지면을 요하는 작업이다. 비블리오프라마의 내적 규명은 다른 학문영역들과의 경계선 및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비블리오프라마 관련 학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블리오프라마의 현 모습을 정리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비블리오프라마의 정체성은 먼저 내적 차원의 연구가 있는 후 외적 차원의 연구가 이어짐으로써 명확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비블리오프라마를 내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시도다. 그동안 비블리오프라마 관련 자료에서 소개된 비블리오프라마에 대한 개념정의(II)를 살펴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비블리오프라마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비블리오프라마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 그 구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III). 그리고 이러한 선구적 인물들의 생각을 통해 비블리오프라마가 추구하는 근본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IV), 아울러 비블리오프라마를 구성하는 구조를 정리해 낼 수 있다(V). 비블리오프라마에 대한 외적 차원의 연구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작은 지면을 통해 비블리오프라마의 모습이 비블리오프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면, 본 논문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비블리오드라마의 개념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는 “성서/책”를 뜻하는 “biblos/biblion”와 “행위”를 뜻하는 “drama”의 합성어다. 문자적 의미로만 본다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책)의 이야기를 역할극 형태로 재연(enactment)하는 것이다(Krondorfer, 2008a, 14).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는 기존의 “성극”, 또는 “성서극”과는 차이가 있다. 성극(성서극)은 정해진 극본(시나리오)을 가지고 연기자들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는 정해진 극본도 없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연기자들은 어떤 내용을 연기하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기로 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즉흥적으로 상황을 표현하고 그 연기과정에서 관찰했거나 느꼈던 점을 성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고원석, 2016, 4-5).

비블리오드라마란 이름을 처음 명명했던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2008)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한 명 혹은 다수의 비블리오드라마 지도자(디렉터)의 안내를 받아, 12명에서 최대 18명의 참가자와 성서본문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열린 프로그램”(21)이라고 정의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여러 명의 참여자들이 디렉터(지도자)의 안내를 따라 극적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집단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어떤 정해진 결말을 연기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열린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비블리오드라마 전문가 핏젤(2016)은 비블리오드라마를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연기하는 역할극”, 더 나아가 “드라마 형태를 띤 해석학”이라고 정의한다(25). 성서본문을 연기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성서해석의 한 형태로 여기고 있다. 또 크렐러(2013)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성서의 진리와 영혼의 진리를 (드라마적) 행위를 통해 구현하려는 노력”(68)이라고 정의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드라마적 행위를 통해 성서 인물들의 하나님 경험과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경험을 만나게 하고 화해시킴으로써 새로운 진리(인식)에 이르고자 한다. 한편 마르틴(2013)은 비블리오드라마의 영역을 넓혀서 “종교적 또는 서사적 텍스트를 해석해 가는 학

문적 성찰 방법”(509)이라고 말하면서 비블리오드라마는 문학과 종교와 동반자(파트너)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비블리오드라마가 성서본문에만 제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종교 및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폭넓은 해석 작업의 방법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기독교교육학자인 알테베르트(2001)는 지금까지 소개된 비블리오드라마 이해를 아우르며 비블리오드라마를 “성서 본문과 참여자들의 개인사(Biografie) 간에 전인적인 만남과 상호개방(발견)을 목적으로, 참여집단을 통해 성서본문을 극화한 과정중심의 학습방식”(24)이라고 정의한다. 알테베르트의 정의는 비블리오드라마라는 활동의 핵심적 측면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여겨지기에 그의 정의를 중심으로 비블리오드라마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24-27).

첫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본문(텍스트)을 극화한 형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본문을 내용으로 삼아 일종의 역할극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본문의 내용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성서 본문을 극적 방식으로 재연하는 과정에서 성서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체험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극이나 성극이 분명한 테마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기자들이 정해진 역할과 대사를 연기해 나가는 것과 달리,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본문을 연기하되 자발적이면서도 자유롭게 본문을 연기하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비블리오드라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비블리오드라마 디렉터나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비블리오드라마가 존재하게 된다.

둘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행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어느 한사람의 주도적인 의지와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집단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을 중요시하고 존중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그런 점에서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에서는 연극처럼 연기자와 연기를 바라보는 관객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관객의 입장에서 연기자로, 연기자의 입장에서 관객으로 변신한다. 여기서 상호 역동성이 발생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디렉터(인도자)조차도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디렉터의 생각

을 매개로 집단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각을 자극하고 창의적 행위를 불러 일으키고자 노력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전문가 한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공동체적 행위를 통해 좀 더 완전하고 전체적인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기본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는 과정중심의 행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연기 행위를 통해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하지 않는다. 기존 연극이나 성극은 완성된 결과물을 청중 앞에서 재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블리오드라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은 역할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한 상호 느낌과 체험에 주목한다. 과정을 중시하다보니 비블리오드라마는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정해진 목표점을 향해 참여자들을 이끌어가기 보다는 행위 과정 중에 느끼고 경험했던 체험들을 참여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열려진 결말로 인도한다.

넷째, 비블리오드라마는 텍스트(성서)와 비블리오드라마 참여자들의 개인사를 서로 대면하게 하여 상호 융합을 추구한다. 텍스트를 거리 두고 비평적으로 관찰하는 해석방식과 달리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텍스트의 세계와 장면 속으로 뛰어들으로써 본문의 사건과 자기 모습과 대면하게 된다. 텍스트의 사건이 내 삶의 사건이 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텍스트의 인물처럼 고민하며 그 문제에 인격적인 응답을 하게 하는 것이 비블리오드라마의 주된 목적이다.

다섯째, 비블리오드라마는 텍스트(성서)의 문제가 내 삶, 내 삶의 이야기가 텍스트(성서)의 의미를 개방시키고 새롭게 바라보도록 한다. 즉,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와 참여자의 대면을 통해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성찰을 일으킴으로써 서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발견하는 기회(상호개방)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삶에 도전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참여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도모한다.

III. 비블리오프라마의 선구자들

비블리오프라마가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다. 비블리오프라마란 표현이 1979년에 등장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비블리오프라마는 이제 겨우 40살의 역사를 지나왔다고 해야겠다. 지난 40년의 비블리오프라마 역사 가운데 비블리오프라마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던 네 명의 학자들이 있었다.

1. 월터 윈크: 비블리오프라마의 토대

1) 윈크의 생애

비블리오프라마는 소위 역사 비평적 성서해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던 시기와 함께 등장하였다. 역사 비평학은 근대 해석학의 등장 이래 성서해석학의 근간이 되었다. 역사 비평학은 텍스트의 이해의 기준을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 즉 주변 세계의 역사적 관련성에서 찾고자 한다. 전통과 교리에 근거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하는 대신, 역사 비평학은 텍스트를 둘러싼 주변 세계를 기술(description)하고 그 관련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저작시기와 독자의 상황을 확증하고 텍스트가 출현하게 되는 주변 세계(컨텍스트)를 역사적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한다. 그리고 이러한 컨텍스트의 기준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연구하고자 했다(Weidemann, 2013, 458-59). 그러나 역사 비평학이 그동안 보여준 성서해석학의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사 비평학은 성서해석의 자리를 교회의 신앙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옮겨놓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신앙의 현장에서 성서를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시켰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다.

신약성서학자 월터 윈크(W. Wink)는 바로 이러한 성서 비평학의 한계와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성서해석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학자다. 윈크는 1935년 텍사스에서 태어나 남감리

교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그 후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1968년 철저하게 역사 비평학에 근거하여 연구한 논문, “복음전승과정 속의 세례요한”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2-1967년까지 텍사스 주에서 목회를 한 뒤, 1967년부터 뉴욕 유니온신학교의 초빙을 받아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1971년 윈크는 심리학 연구모임과 함께 예술 행위를 통해 성경과 문학을 표현하는 포 스프링스(four springs) 세미나에 참여하며 몸과 마음, 영혼과 신체의 통합적 변화와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때의 경험은 성서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다주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로서 부임하여 학문적 활동에 한창이던 1973년, 윈크는 문제작 『인간변형을 위한 성서 - 성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The Bibel in Human Transformation)를 저술한다. 이 책에서 윈크는 역사 비평적 성서연구방법론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전체 9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책이 성서학계는 물론 기독교 사회에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책은 세간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신약성서학계에서는 신약성서연구의 주된 연구방법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윈크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고, 결국 윈크는 그해 유니온 신학교 교수직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1980년 어번(Auburn) 신학교 교수로 초빙된 윈크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성서해석에 연구를 몰두하였고, 그러한 그의 연구는 비블리오드라마의 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윈크는 2012년 메사츄세츠에서 7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Lehnen, 2006, 61; Art. Walter Wink, 2020).

2) 인간의 변형을 추구하는 성서연구의 모색

윈크는 『인간변형을 위한 성서』(1973, 1-10)에서 성서 비평학의 “파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성서 비평학이 추구하는 바가 성경 본래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성서 비평학은 “객관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셋째, 성서 비평학은 기술지상주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넷째, 성서 비평학은 교회공동체의 현실 및 삶을 철저하게 외

면해 버렸다. 다섯째, 성서 비평학이 발전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버렸다는 것이다(양금희, 2006).

윙크가 보기에 서구신학의 성서 비평학은 잘못된 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잘못된 객관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기술주의적 사고에 내어맡기게 되었고, 생동적인 교회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오늘의 관점에서 그 유용성은 희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성서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윙크(1973, 20-75; 2008, 260-65)는 5단계의 “변증법적 해석학” 모델로 제시했다.

(1) 병합(fusion): 병합이란 전통과의 병합을 의미하며 해석과정에서 해석자가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해석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지만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2) 부정1(병합의 부정): 해석자가 쉽게 범하는 병합의 습관을 멈추는 단계다. 무의식적으로 취하게 되는 전통에 대해 의심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시작된다.

(3) 거리두기(distance): 거리두기는 전통을 객관화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단계다. 윙크는 이 거리두기의 단계를 자신이 비판했던 성서 비평학의 긍정적 역할로 보았다. 하지만 성서 비평학의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될 때, 정신적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성서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해석자가 “소외된 의식”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4) 부정2(부정의 부정): 그래서 윙크는 두 번째 부정을 수행하자고 말한다. 이것은 성서 비평학이 가지고 있던 객관적 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서본문이 분석의 대상화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해석의 대상인 성서가 오히려 해석자에 대하여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다. 윙크는 부정2의 단계에서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는 이 부정2를 통해 “제2의 소박성”(리피르)에 이르고자 했다.

(5) 융합(communion): 마지막 5단계는 융합의 단계다. 주체와 객체의 분열이 극복되고 상호 변증법적 대화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윙크는 이 단계에서 성서와 신체 움직임을 통합하는 방법론을 시도

하였다. 신체의 움직임과 성서이해의 관계를 링크는 이렇게 말한다.

신체 움직임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세상 속에 퍼지고 있는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의 몸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성경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육신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 고찰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몸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도록 개방해야 한다(265).

링크의 고민은 신학이 대(對)사회적으로, 대(對)교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고, 지나친 지식위주의 신학을 넘어 전인적인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신학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는 “변증법적 해석학”의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적 비평을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텍스트를 객관화하는 해석학을 넘어 성서본문과 해석자가 서로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해석학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성서와 몸의 움직임을 결합시키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성서해석학적으로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게르하르트 마르틴: 비블리오드라마의 명명

1) 마르틴의 생애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마르틴(G. Martin)은 “비블리오드라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명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체계를 마련한 비블리오드라마의 실질적인 선구자다. 1942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난 마르틴은 신학과 철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1973년 조직신학자 몰트만(J. Moltmann)의 지도아래 학위논문, “루돌프 블트만 신학의 결단주의? - 결단에 관한 신학적 진술의 신학적, 인간학적, 논리적 문제”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마르틴은 1973-74년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시기는 (위에서 언급

했듯이) 윙크가 역사 비평적 신학의 “파산”을 선고하며 신학적 논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였다. 그곳에서 마르틴은 윙크의 신학적 고민을 진지하게 수용하였고, “어떻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되었다.

마르틴에게 비블리오프드라마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과 신학적 깨우침을 제공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곳에서 일어났다. 마르틴은 뉴욕 신학교에서 머무는 기간에 무용안무가인 카트야 델라코바(K. Delakova)를 만나게 되었고, 델라코바로부터 신체활동에 근거한 성경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르틴은 델라코바로부터 “생동적인 회심”을 경험했다. “나는 델라코바를 통해서 내 몸을 철저히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이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몸의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델라코바는 마르틴의 신학에 신체중심의 영역을 각인시켰고, 델라코바의 영향으로 유럽으로 돌아와 비블리오프드라마가 태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로 돌아와 1976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마르틴은 개신교 아카데미 아놀드하인(Arnoldshain)의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전통적인 학문적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신학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며 신학적 사고와 몸의 활동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고 정착시켰다. 1979년 드디어 마르틴은 자신의 작업을 “비블리오프드라마로” 명명하였다. 1982년 마부르크(Marburg) 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로 임용되어 은퇴하기까지 거기서 가르쳤다. 그의 연구의 중심은 실천적 성서해석, 설교와 비블리오프드라마였다. 그는 성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현장에서 비블리오프드라마를 인도하며 신앙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명실상부한 비블리오프드라마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또 은퇴 후에는 한국을 여러 번 오고 가며 한국 비블리오프드라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Kreller, 2013, 73-74; Art. Gerhard Marcel Martin, 2020).

2) 비블리오프드라마: 몸으로 읽는 성서

마르틴(2008, 190-92)은 비블리오프드라마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신학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이성적, 학문적 측면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둘째, 그런 가운데 신학과 교회 안에 창의성에 대한 요청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셋째, 창의성의 한 형태로 신학

과 심층심리학 사이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비블리오드라마다.

(1) 비블리오드라마의 성서적 관심: 그물망으로서 성서

1995년 저술한 저서 『몸으로 읽는 성서』(원제: Sachbuch Bibliodrama)는 비블리오드라마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이론서다. 이 책에서 마르틴은 롤랑 바르트(2015)의 구조주의적 텍스트 이론의 도움을 받아 성서본문을 일종의 직물(textile), 그물망으로 이해하였다. “텍스트는 직물(織物)이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 의미의 여백을 지니고 있다.

하나의 덩어리로서 본문은 하늘과 비교해 볼 만하다. 평평하고 매끄럽지만 큰 깊이가 있고 그 가장자리나 경계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덩어리이다. 이는 마치 마술사가 새들이 날아가는 공간을 향하여 지팡이의 끝으로 어떤 상상의 직사각형을 그릴 때 영역이 생기는 것처럼, 주석가들이 어떤 특정한 원칙을 가지고 본문의 한 부분을 독서의 한 영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의 이동과 코드의 노출을 목도하며 인용할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Martin, 2008, 210에서 재인용).

바르트를 통해 마르틴이 발견한 본문은 수많은 별을 담고 있는 하늘과 같다. 하늘은 얼핏 보기에 평평한 판자와 같지만 하늘은 끝없이 드넓은 공간이며, 그 속에 있는 별들은 또 다른 별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하늘은 수많은 세계를 우리에게 투사시키고 있는 요술매체다. 우리는 하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서 본문은 단순히 평면의 종이 위에 새겨진 글씨 덩어리가 아니다. 그 글자와 글자간의 공간을 통해 깊이 있고 무한한 세계가 새롭게 펼쳐진다. 마치 하늘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개방시키고 인도하는 공간적 매체다. 결국 성서의 본문은 배우고 익혀야 할 학습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참여자들이 자기를 개방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매체다. 따라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마르틴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은 성서본문의 한 가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서본문의 다양하고 부수적인 의미요소를 발견하고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성서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210-211).

(2) 비블리오드라마의 신체에 대한 관심

마르틴은 뉴욕에서 델라코바로부터 경험했던 “움직임의 예술”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 깨달음을 성서연구에 적용한 것이 비블리오드라마다. 마르틴(2008, 199-201)은 비블리오드라마 과정에서 신체 움직임이 주는 유용성을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① 초점의 변화: 신체의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늘 일정한 패턴을 갖기 마련인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서로의 신체 움직임에 주목함으로써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을 깨닫게 되고 그 오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② 상호 교류(소통)의 발생: 신체의 움직임에는 순서와 속도가 있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거나 반응할 때, 또는 서로의 움직임을 성찰하고 교정해 줄 때,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차원에서 상호 교류를 경험한다.

③ 창조적 의미의 통로: 동일한 언어표현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때,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미지와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서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여 절을 하라고 할 때, 그 절의 움직임이 무엇이었는지 신체로 표현할 때, “절함”의 창조적 의미가 도출된다.

④ 자발성(자유함)의 경험: 비블리오드라마의 움직임은 강요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다. 강요(규범)와 그에 대한 저항의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발적인 움직임은 자유함의 존재경험을 부여한다.

따라서 마르틴에게 있어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인격적 대면을 통해 진리인식에 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블리오드라마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성서본문과의 드라마적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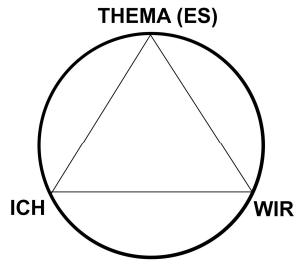
(Entgegnung)과 갈등의 상황(무대)으로 초대된다. 이러한 드라마적 상황에서 연기자(참여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 인격과 고유한 자기 경험과 감성을 가지고 연기에 몰입하게 된다. 개개인의 판단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이들의 판단은 나의 입장에 새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나의 개인적 입장과 다른 이들의 입장사이의 긴장은 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대립되는 논쟁 속으로 뛰어들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한다. 서로 모순되는 삶과 경험들이 어우러진 확신과 입장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공간이 형성된다. 이 과정 속에서 역할부여와 수행, 그리고 역할전도(轉倒)의 과정은 참여자들의 심층적이고 다차원적 지각을 불러일으킨다.

3. 팀 슈람: 상호작용적 성서해석의 방법론

1) 슈람의 생애

슈람(T. Schramm)은 194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함부르크 대학과 튀빙엔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어를 전공하고, 1966년 함부르크 대학에서 『누가복음의 마가자료: 문헌비평적·편집비평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슈람은 대학조교로, 그리고 중등학교 종교교사로 일하였는데, 이 시기에 그는 독일을 방문한 루스 코헨(R. Cohen)의 “테마중심의 상호작용(TCI: Theme-Centered Interaction)”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Schneider-Landolf, Spielmann & Zitterbarth, 2017). TCI는 ‘비(非)판단적 태도’, ‘상호존중’, 그리고 ‘개방성의 증대’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문화 학습운동이다. TCI는 ‘창의적’이고 ‘생동적인 학습’(living learning)을 테마(es), 개인(ich), 집단(wir), 그리고 환경(Globe)의 상호작용을 통해 몸과 영혼, 지성과 감성, 전체와 부분의 역동적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TCI의 경험은 슈람의 성서해석 및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슈람은 1972년에 함부르크 대학 신약학 교수로 부임하여 2005년 은퇴하기까지 후학을 가르쳤다. 함부르크 대학교수로 부임하던 해에 슈람(Schramm & Vopel, 1972)은 코헨의

집단학습을 소개하고 교회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 1975년 “거리두기와 밀착”이란 논문에서 그는 윈크의 『인간변형을 위한 성서』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해석학(변증법적 해석학)을 고찰하였다. TCI에 대한 관심과 윈크의 성서해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을 통해 슈람은 점차적으로 비블리오드라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슈람에게 있어서



[그림 1] TCI의 구조

비블리오드라마는 TCI의 상호작용과 성서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학자로서 슈람은 비블리오드라마와 성서주석 사이의 논쟁 가운데서 바른 자리를 찾아 둘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다(Schramm, 1975, 372-387; 2008, 138-139; Lehnen, 2006, 92-94; Aldebert, 2001, 209-210).

2) 치료를 대신하는 예술로서 비블리오드라마

슈람(2005)은 자신이 비블리오드라마로 간 것이 아니라 비블리오드라마가 자신의 삶 가운데 출현했다고 말한다(9). 슈람은 종교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쳤던 경험, 그리고 TCI로부터 배웠던 상호작용에 대한 깨달음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성서교육, 참여자 중심의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비블리오드라마는 자신의 교수학적 관심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최고의 통로 역할을 제공하였다.

슈람(2008, 137)은 비블리오드라마의 등장을 성서 연구 및 본문 적용을 위한 커다란 성과(이유)의 꽃으로 평가한다. 슈람이 볼 때, 성극, 역할극, 심리극 등의 연극분야과 명상, 무용, 놀이 등의 신체운동 분야, 여기에 신학, 교육학, 게슈탈트 심리학 등의 학문 분야들이 비블리오드라마 탄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성서해석의 방법을 발전시켰고, 성서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실

존적 만남을 가능케 하였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묻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몸과 영혼, 감정과 지성을 동반하는 성서이해의 길을 제공하였다. 그런 점에서 슈람은 비블리오드라마는 다양한 접근이론과 방법을 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경공부이자 치유운동이라고 부른다.

특히 슈람(2008)은 비블리오드라마가 성서연구 및 성경공부를 삶의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의 내적 성장과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슈람이 볼 때, 비블리오드라마의 “동일시” 기법은 성서본문을 참여자의 삶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성경과 자신의 삶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자발적인 연기 행위와 더불어 신체적 움직임은 성서 이해에 대한 지식적 한계를 넘어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확대시킨다. 비블리오드라마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비블리오드라마가 머리와 가슴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본문을 머리만이 아니라 신체의 언어로 고민하며 해석해 들어갈 때 성서 이해가 전인적인 과정으로 확대된다. 성경 본문 중 치유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듯이, 성경 본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본문의 연기 상황에 맡길 때, 그 맡기는 만큼의 치유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슈람은 TCI의 창시자 코헌의 말을 빌어 비블리오드라마를 “참여를 통하여 치료를 대신하는 예술”이라고 부른다(140-45, 183-84).

우리는 판단하지 않으며 단지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을 표현하면 된다. 종종 이러한 대화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또한 상담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 우리가 성경 본문을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열리[며] 그것은 치유의 계기가 된다(184).

4. 피터 핏첵: 미드라쉬적 비블리오드라마

1) 핏첼의 생애

비블리오드라마의 네 번째 선구자는 “비블리오로그(Bibliolog)”라는 형태의 비블리오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는 미국의 피터 핏첼(P. Pitzele)이다. 1941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핏첼은 유대의 성서해석 전통인 미드라쉬적 해석원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인물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터 핏첼의 아버지가 심리극의 창시자 야콥 모레노(Jacob Moreno, 1892~1974)의 미망인 젤카 모레노(Zerka Moreno)와 20년 이상 심리극 활동을 함께했다는 점이다. 핏첼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영문학 교사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심리극에 친숙했던 핏첼은 점차 심리극과 즉흥극(improvisational drama) 훈련을 받고 심리극 치료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1984년 핏첼의 사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유대 신학교(Jewish Theological Seminary)의 목회심리학 교수로 있던 친구 클락스브룬(S. Klagsbrun)의 초청으로 신학생들의 수업을 인도하게 된 것이다. 리더십 수업에서 핏첼은 성서의 모세 이야기와 심리극의 기법을 결합시켜 지도자로서 모세가 고난 가운데 느꼈을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이야기하게끔 이끌었다. 학생들은 성서의 리더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의 갈등과 고뇌를 탐색하는 경험에 놀라며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핏첼은 역할극을 이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다양한 차원에서 탐색해 나갔고, 성경을 이용한 해석학적 놀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비블리오드라마에 관심을 갖으며 자신의 활동영역을 전환하게 되었다.

점차 핏첼은 자신만의 고유한 비블리오드라마 형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2000년 9월 독일의 세게베르크(Segeberg)에서 열린 국제 비블리오드라마 대회에서 “미드라쉬로서 비블리오드라마”란 제목의 발표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비블리오드라마를 “비블리오로그”라고 불렀다. “로그”(log)는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Logos)에서 온 것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몸의 움직임보다는 주로 대화와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블리오드라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유태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배웠던 유대전통의 성서이해와 심리극 활동의 경험 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현재까지 핏젤은 성공회 그리스도인이자 심리극 치료사인 부인 수잔 핏젤(S. Pitzele)을 동역자로 삼아 비블리오드라마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Pohl-Patalong, 2009, 9; Lehen, 2006, 138).

2) 핏젤의 미드라쉬적 비블리오드라마

1988년 핏젤은 자신의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을 집대성한 『비블리오드라마로의 초대』(2016, 원제: Scripture Windows: Toward a Practice of Bibliodrama)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비블리오드라마의 전 과정을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며 소개하고 있는 비블리오드라마 실천서이자 비블리오드라마 디렉터를 위한 지침서다.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을 위한 본문선택의 단계부터 워업, 연기, 그리고 종결과 성찰에 이르는 과정을 전문가다운 시각에서 생생하게 묘사하며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핏젤에게 있어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에 등장하고 또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존재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구체화함으로써 오늘의 현실 속에 그 인물의 되살리는 작업이다.

드라마에서 연기할 인물은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경우(아담 또는 하와)도 있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노아의 아내, 또는 아브라함의 어머니)도 있다.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사람들은 목소리나 행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특정 대상이나 이미지(에덴동산의 뱀이나 모세의 지팡이)를 연기하기도 한다. 또 특정한 공간(요단강이나 시내산)이나 영적인 존재(천사, 하나님, 사탄)가 말을 하거나, ... 다양한 관점에서 작업하기 위해 역사상의 인물들(필로, 아우구스티누스)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역할극을 통해 이들의 존재와 생각을 상상하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25).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아주 새로운 작업이 아니라 성경해석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했고 전통을 통해 이어져온 방법이다. 핏젤은 자

신의 비블리오프드라마를 유대 성서해석 전통의 하나인 미드라쉬의 현대적 형태라고 말한다. 미드라쉬란 유대교의 규례와 규범을 일상생활 및 새로운 상황의 도전과 요구에 응답하는 유대교 전통의 성경해석방식 또는 성경해석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성경 내용의 이해를 돕고, 내용간의 모순을 설명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시도된 본문에 대한 주석, 이야기, 설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조철수, 2007, 17; Stemberger, 1989, 21-22). 노이즈너(1987, 7-8)에 따르면, 미드라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주해(paraphrase)로서, 성경을 히브리인들의 일상적 의미로 풀어주는 형태이다. 둘째는 예언(prophecy)으로서, 성경의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다. 셋째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포함하는 비유(parable)적 형태로서, 한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씀의 관점과 관련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문자적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미드라쉬 성서 해석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랍비 나만(Rabbi Nahman)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선한 욕망을 가리킨다. 반면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란 표현은 악한 욕망을 지칭한다. “심히 좋았더라”란 이 표현은 선과 악의 성향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이 창조된 후에만 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단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만 말씀하신다. 도대체 악한 욕망이 심히 좋을 수 있단 말인가? 욕망은 지나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악한 욕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집을 짓거나, 결혼하여 아내를 삼는 다든지, 자녀를 갖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말한 바 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전4:4)(Genesis Rabbah 9:7, <http://en.wikipedia.org/wiki/Midrash>서 재인용). 언어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해석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해석의 주된 관심은 논리적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사건과 오늘의 인간 현실을 접목

시키고자 함에 있다. 미드라쉬 전통은 본문 상에서 그리 크게 주목되지 않는 “심히”라는 일상적 표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창조사건 속에서 인간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 인간의 현실과 연결시키고 있다. 욕망을 가진 인간, 선한 욕망으로 인해 문명을 태동시키고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던 반면, 지나친(심히) 욕망으로 인한 인간들의 시기와 경쟁의 결과로 인해, 평화를 파괴하고 다툼과 분쟁, 불평등을 일으켰던 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들이 아닌가? 미드라쉬는 이렇게 의외의 방식 그리고 우스꽝스런 방식으로 창조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의미, 그리고 인간 현실을 향한 창조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핏젤의 미드라쉬적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일상적인 의미(주해)로, 현대인의 삶의 지평(예언)으로, 아울러 문자 너머에 있는 깊은 의미(비유)로 확장시켜 현대인들의 성경이해와 교육을 풍성하게 한다.

미드라쉬는 고대 말기 랍비들의 성경 해석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산물인 동시에 과정을 지칭하는 단어다. 랍비들은 성경읽기 활동을 강화시켜 주는 재담이나 비유, 익살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미드라쉬는 ‘탐색하고 연구하다’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다. 미드라쉬는 기록된 문서(text)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통찰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풍성하게 하고, 성경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미드라쉬는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확장된다(26).

핏젤이 미드라쉬에서 발견한 현대적 의미가 이것이다. 즉, 미드라쉬의 전통 속에서는 성서해석의 학문작업이 놀이행위처럼 전개되고, 역사적 탐구가 문학적 상상력과 조우한다. 진지함에 재치(익살)가 동참하고 이성 과 감성이 융합된다는 점이다. 핏젤은 신앙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무시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성서교육의 실마리를 바로 미드라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드라쉬적 비블리오드라마가 추구하는 교사(인재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성경은 공격받고 있다기보다는 아예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어느 때보다 교사를 더 기다리고 있다. ... 앞으로 성경은 해박하면서도 열정적인, 허구적이면서도 재치가 있는, 그리고 책과 현실 모두에서 지혜를 얻는 교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성경을 격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현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잠에서 깨움으로써 성경을 생명력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할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터득하고, 새로운 발견을 내디려야 한다(28).

핏젤은 비블리오드라마를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킨 선구자다. 기존의 비블리오드라마가 강조했던 신체 움직임에 대한 강조의 폭을 줄이고 언어와 대화중심으로 이끌어감으로써 비블리오드라마 참여자들의 행위연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고, 소규모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벗어나 좀 더 확대된 규모의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블리오드라마의 근거를 유대 해석전승에 둬으로써 비블리오드라마를 심리극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에 맞서 비블리오드라마의 성서해석학적 관점과 기반을 더 견고하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블리오드라마가 좀 더 성서 텍스트에 기반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IV. 비블리오드라마의 근본성격

앞에서 비블리오드라마의 선구적 역할을 한 네 명의 학자들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비블리오드라마라는 공통된 활동을 발전시켰으나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향하고 있다. 네 사람은 모두 당시 신학의 한계성을 느끼고 신학의 영역을 심층심리학, 무용, 상호작용, 그리고 미드라쉬 등과 결합시킴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와 역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이들의 생각을 종합하여, 비블리오드라마가 가

지고 있는 근본성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신체성: 창의성과 자발성

비블리오프라마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행위이다. 비블리오프라마는 성서의 사건 상황을 무대 위에 펼쳐놓고 학습자들을 그 상황 안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한다. 마르틴이 강조하고 있듯이, 이 때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신체)을 동반하여 그 상황에 참여한다. 텍스트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관찰하듯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하기에 전인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논리적 사고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동반한 몸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자는 역할인물이 되어 그 인물의 모습(몸)으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한다. 객관적 대상이었던 성서(텍스트)가 참여자 자신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고 참여자는 거기서 고민하며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변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Wink, 1973; Schramm, 2008, 144). 비블리오프라마는 참여자들의 신체성에서 일어나는 소통과 경험의 과정을, 그리고 깨달음과 느낌의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Kreller, 2013, 39-41). 슈람(2008)은 성서 텍스트와 몸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의 신체는 이야기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몸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자’는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비블리오프라마는 육체와 영혼이 관련된 만큼 머리와 가슴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서의 본문을 머리만이 아닌 신체의 언어로 해석해 들어갈 때에 성서이해의 전체적인 과정이 강화된다.(144, 183)

비블리오프라마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근거한다. 비록 그 몸은 나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몸을 가진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대상이다. 또한 인간의 창조성과 자발성 또한 기독교의

창조신앙에 근거한 인간의 능력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곧 창의성과 자발성인 것이다. 창의성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전통적인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그리고 자발성은 창의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늘 같은 것을 답습하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창의성과 자발성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신체성에서 도출되는 창의성과 자발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성서의 이야기를 늘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이야기, 생명력있는 말씀으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더 나은 삶과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역동성을 발휘케 한다. 그런 점에서 비블리오드라마는 복음이 문서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몸의 역동적 표현”을 되살리는 “역(逆)번역” 과정에 해당한다(Kreller, 2013, 12; Naurath & Pohl-Patalong, 2002, 77).

2. 상호작용

비블리오드라마는 극적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블리오드라마의 극적 상황은 우리를 일상적인 삶에서 분리시킨다. 이것은 일종의 해방의 사건이다. 극적 상황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를 제한하고 규정했던 모든 관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전혀 새로운 삶의 구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 자신은 순수한 ‘나’, 순수가능성의 자신이다. 그리고 텍스트의 세계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문제와 조우함으로써 ‘나’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다. 그럼으로 말마암아 성서(텍스트)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 역동성 가운데 성서의 이야기는 연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된다.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은 성서 해석의 매개체가 되고, 성서 해석은 다시 현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연기를 통해 극화된

성서 이야기는 비블리오프라마 참여자들의 근본적인 물음과 실존적 상황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Weber, 2006, 98).

슈람(2008)과 마르틴(2010)은 비블리오프라마의 극적 장치를 통해서 성서 이야기와 참여자 간에 진지한 상호소통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슈람이 강조했다듯이, 비블리오프라마는 TCI가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가장 탁월하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비블리오프라마의 극적 환경은 TCI의 “나 - 우리 - 테마”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으로 가르쳐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포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방적인 선포에 귀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일방적인 관계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서는, 그리고 성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반응하시는 분이다. 비블리오프라마는 성서 및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상호소통의 측면, 상호작용의 차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Zimmermann & Zimmermann, 2013, 54-55). 비블리오프라마를 통해 성서는 나와 동일한 인간들의 삶과 경험이 투영된 생동감 있는 이야기가 된다.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성서의 한 문장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경험한다. 나와 본문 사이에 공명이 일어난다. 성서 전통과 나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고원석, 2018, 434; 손성현, 2010, 444).

3. 성서의 빈공간: 느낌의 미학

핏젤(2016, 39-43)은 성서(텍스트)를 검은 불꽃의 날실과 과 흰 불꽃의 씨실로 엮어진 의미 공간으로 보았다. 특히 전통적인 해석학이 검은 불꽃(문자)에만 주목한 것에 비해, 미드라쉬적 전통은 흰 불꽃(여백)에도 주목한다. 흰 불꽃, 즉, 텍스트의 빈 공간까지 염두하며 성서를 읽어나가

기 위해서는 읽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읽어내야 한다.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상상하며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잡기 위해 “빠름”의 태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태도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읽기도 빠름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문제는 이 빠름의 태도 속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한 숙고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서 이야기를 접할 때,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갖는대거나 진지한 고민 없이 쉽게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곤 한다. 우리가 성서본문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의미를 확인할 뿐 그 본문을 다시 성찰하여 새로운 의미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빠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서를 곱씹어서 이해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성서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 만족하곤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빠름의 분위기 대신에 “느림”의 미학을 지향한다. 성서를 천천히 읽어나감으로써 성서에 대한 표면적 이해를 넘어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고자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등장인물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몸의 움직임을 표현함으로써 성서 본문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바라본다. 본문을 자신의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몸의 표현을 주목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본문을 천천히 곱씹어 읽게 된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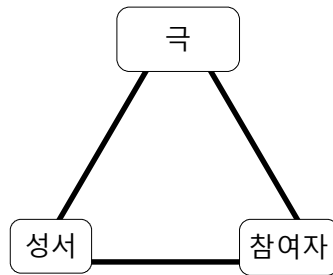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눅15:11-12, 개역개정).

본문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없는 요소들이 이해를 가로막고 등장한다. 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있을까? 아버지는 재산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에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일까? 비블리

오드라마는 가능한 한 모든 감각과 감정을 가지고 성서의 빈 공간에 집중하여 본문을 “천천히” 읽어나간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을 감정이입과 몸을 통해 표현해 봄으로써 반복해서 읽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했던 본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된다(고원석, 2018, 435-436; Kreller, 2013, 15).

4. 비블리오드라마의 삼중 구조

이상에서 비블리오드라마의 세 가지 근본성격을 신체성, 상호작용, 그리고 성서의 빈 공간으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성격은 교육의 행위자(교사와 학습자),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체성이란 비블리오드라마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성격을 말해준다. 그들은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행위의 주체다. 상호작용은 비블리오드라마의 극적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드라마의 극적 상황 속에서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역동적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비블리오드라마가 주목하는 성서의 빈공간은 성서가 왜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새롭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인지를 이해시킨다. 비블리오드라마는 교육의 내용에 해당하는 성서 이해를 위해 성서의 여백에 주목하여 천천히 읽어나감으로써 문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해방시키고 살아 움직이게 한다. 성서의 빈공간은 성서의 내용과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서해석의 열쇠다. 정리하면, “성서(빈공간) - 극(극적 방식) - 참여자(신체성)”은 비블리오드라마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며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적 차원에서 규명을 시도한 비블리오드라마를 삼중적 구



[그림 2] 비블리오드라마의 삼중구조

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1) 신체성(감정과 몸)을 동반한 참여자가 2) 빈공간인 성서 이야기를 3)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극적 방식을 통해 전인적 해석과 체험, 치유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학습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비블리오드라마의 개념정의에서 시작하여 비블리오드라마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네 명의 학자를 고찰하였고, 그들의 핵심적 가치를 중심으로 비블리오드라마의 근본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 본문과 참여자들 사이에 전인적인 만남, 역동적 상호소통, 그리고 상호발견을 목적으로, 공동체적 참여를 통해 성서본문을 극적 방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중심의 학습형태다. 비블리오드라마에 대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태동시킨 네 명의 선구적 학자들의 학문적 고민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이해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역사비평학의 파산을 선고했던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성서학자 윙크의 해석학적 노력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태동시킨 신학적 고민과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은 뉴욕 유니온 신학교 생활 중에 성서를 신체활동을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비블리오드라마를 실질적으로 태동시켰다. 또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신약성서학자 슈람은 TCI(테마중심의 상호작용) 운동에 깊이 주목하면서 성서연구의 상호작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으로서 비블리오드라마를 발전시켰다. 아울러 슈람은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성서 해석을 치유를 동반한 예술적 행위로 확장시켰다. 한편 미드라쉬 전통에서 비블리오드라마를 구현하고자 했던 핏젤은 유럽 비블리오드라마와 차별된 미드라쉬적 비블리오드라마(비블리오로그)를 발전시켰다.

네 명의 선구자들을 통해 비블리오드라마의 근본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신체성은 언어적·정신적 영역에 주로 의존해 왔던 신

학적 소통과 성서 해석의 방식을 비언어적 영역, 즉 신체의 감정과 움직임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신체성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자극함으로써 전인적 학습 환경을 구성한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비블리오드라마의 극적 방식이 이끌어내는 자연스런 효과다. 참여자들은 비블리오드라마의 극적방식을 통해 성서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으로 경험하고 성서 텍스트의 근본적인 물음과 대면함으로써 성서와 진정한 상호소통을 맞보게 된다. 세 번째 성서의 빈공간은 성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주목해야 할 영역이다. 문자의 의미에만 주목했던 기존 성서해석에서 벗어나 극적 참여를 통해 성서의 빈공간(흰 불꽃)을 채워나가는 비블리오드라마의 역동적 행위는 성서를 천천히 곱씹어 읽게 할 뿐만 아니라 익숙한 성서 본문을 새롭게 깨닫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비블리오드라마는 참여자들의 신체성과 성서의 빈공간, 그리고 극적 방식의 역동성이 어우러지는 삼중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삼중적 근본성격은 기존의 성서교육 및 신학의 틀에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려고 한다. 첫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성서교육의 학습자들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로 바라보고자 한다. 둘째, 비블리오드라마는 기존 신학 수업 및 교회교육 방식의 일방성, 즉 교수와 교사의 설명이 주를 이루는 현 신학수업 및 성서교육의 현실을 극적 방식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간의 진지한 상호소통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이끌어가고자 한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해석을 검은 불꽃에 제한하고 있는 기존 해석의 틀을 벗어나 흰 불꽃(빈공간)을 통해 검은 불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서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더욱 풍성케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이진현 (2019). 비블리오프로마에 의한 대학생들의 자기성장 경험.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2, 1-12.
- 고강호 (2012). 기혼여성에 대한 비블리오프로마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5, 1-15.
- 고원석 (2016).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접근: 비블리오프로마. **기독교교육정보**, 48, 1-31.
- 김세준 (2009). 기독교집단의 비블리오프로마를 위한 액션메소드의 종합적 활용.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2, 23-38.
- 김세준 (2011). 비블리오프로마를 통한 자기 발견과 치유: 가족갈등을 경험한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 21-40.
- 김현희 (2008). 비블리오프로마와 독서치료.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11-42.
- 김희영 (2008). 비블리오프로마(Bibliodrama)를 통한 역동적인 성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59-80.
- 박은미 (2014). **비블리오프로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기독교청년여성의 비블리오프로마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경험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서울: 양서원.
- 비블리오프로마 교육연구소 (2016). **비블리오프로마 매뉴얼**. 서울: 일상커뮤니케이션.
- 손성현 (2010). 비블리오프로마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7, 429-456.
- 양금희 (2007). **해석과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오수진 (2011). 노인 여가활동으로서의 비블리오프로마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4, 91-111.
- 이봉섭 (2015). 비블리오프로마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 장순애 (2017). 성경교수법으로서의 비블리오프로마에 대한 비판적 연구. **신학과목회**, 48, 241-262.
- 정순선·고강호 (2014). 가출청소년의 비블리오프로마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쉼터 여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7, 83-101.
- 최금례 (2017). 비블리오프로마와 자아의 상호작용: 사이코드라마기법을 활용한 비블리오프로마의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8, 177-206.
- 최금례 (2018). 모래놀이치료를 활용한 비블리오프로마의 개인상담 적용 사례연구.

-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29, 147-174.
- 황현영 (2017). 사이코드라마의 잉여현실과 종교적 은유: 단 브라우닝의 수정된 상관 관계론에 따른 심리치료와 종교의 대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 241-266.
- 황현영 · 김세준 (2018). **비블리오드라마**. 서울: 현대드라마치료연구소.
- Aldebert, H. (2001). *Spielend gott kennenlernen. Biblodrama in religions pädagogischer Perspektive*. Hamburg: EB-Verlag.
- Barthes, R. (2015). **S·Z**. 김웅권 역, 서울: 연암서가. (원저 1970 출판)
- Kreller, H. (2013). *Bibliodrama*. Erlangen: Books on Demand.
- Krondorfer, B. (편) (2008a). **비블리오드라마**. 황현영 ·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2 출판)
- Krondorfer, B. (2008b). 경건한 연극 창조적 화신의 맥락에서 본 비블리오드라마.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11, 81-91
- Lehnen, J. (2006). *Interaktionale bibelauslegung im religionsunterricht*. Stuttgart: Kohlhammer.
- Martin, G. M. (2008). 비블리오드라마의 기원과 성경본문. 안: Krondorfer, J. (편). **비블리오드라마**. 황현영,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187-215. (원저 1992 출판)
- Martin, G. M. (2010). **몸으로 읽는 성서**. 손성현 역. 서울: 라피스. (원저 1995 출판)
- Martin, G. (2013). Bibliodrama, in: *Handbuch bibeldidaktik*, hrg. M. Zimmermann & R. Zimmermann. Tübingen: Mohr Siebeck, 509-515.
- Naurath, E. & Pohl-Patalong, U. (Hrg.) (2002). *Bibliodrama*. Stuttgart: Kohlhammer.
- Neusner, J. (1987). *What is midrash?*. Philadelphia: Fortress.
- Pitzele, P. (2016). **비블리오드라마로의 초대**. 고원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8 출판)
- Pohl-Patalong, U. (2009). *Bibliolog: Grundform*. Stuttgart: Kohlhammer.
- Schneider-Landolf, M., Spielmann, J. & Zitterbarth, W. (Eds.). (2017). *Handbook of Themecentered Interaction*. (J. Smith, Tran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chramm, T. (2005). Bibliodrama im raum hamburg. *Textraum: Bibliodrama information*, 13, 9-12.

- Schramm, T. (2008). 비블리오드라마의 행위화: 신약 치유이야기의 재연. 안: Krondorfer, J. (편). **비블리오드라마**. 황현영,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135-185. (원저 1992 출판)
- Schramm, T. & Vopel, K. (1972). Ruth C. Cohns Methode der Gruppenarbeit. Darstellung und mögliche Anwendung in kirchlicher Praxis. *Wissenschaft und Praxis in Kirche und Gesellschaft*. 61, 308-317.
- Stemberger, G. (2008). **미드라쉬 입문**. 이수민 역. 서울: 바오로 딸. (원저 1989 출판)
- Weidemann, H.-U. (2013). Historisch-kritische bibelauslegung. in: *Handbuch bibeldidaktik*. hrg. M. Zimmermann & R. Zimmermann, 457-462.
- Wink, W. (1973). *The Bible in human transformation, toward a new paradigm for Biblical studi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Wink, W. (2008). 인간의 변화를 위한 성경공부와 신체동작. 안: Krondorfer, J. (편). **비블리오드라마**. 황현영, 김세준 역. 서울: 창지사, 251-272. (원저 1992 출판)
- Art. Gerhard Marcel Martin. Wikipedia. Abgerufen 30.03.2020, aus https://de.wikipedia.org/wiki/Gerhard_Marcel_Martin 2020.3.30. 인출
- Art. Walter Wink. Wikipedia. Abgerufen 30.03.2020, aus https://de.wikipedia.org/wiki/Walter_Wink 2020.3.30. 인출

Abstract

Concept, Pioneers, and Characteristics of Bibliodrama

Won Seok Koh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is an attempt to grasp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core structures of Bibliodrama, which has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Christian education. Bibliodrama is a guided form of process-oriented staging of biblical texts in groups with the aim of mutually opening up the text and the biography of the participants in the implementation of holistic encounters (H. Aldebert).

In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Bibliodrama can be found the hermeneutical efforts of the biblical scholar Walter Wink who sentenced the bankruptcy of historical criticism. He laid the biblical interpretative foundation for Bibliodrama which combines Bible and body. German theologian Gerhard Marcel Martin had a new experience of seeing the Bible through body activity during his life in New York, and based on that experience he began to work on the Bibliodrama. And the New Testament scholar Tim Schramm, who focused on the TCI (theme-centered interaction) movement, found the optimal methodology to embody the interaction of biblical studies in Bibliodrama. On the other hand, Peter Pitzele, who wanted to realize the Bibliodrama in the tradition of Midrash, has developed a new type of Bibliodrama (Bibliolog) that is different from the European Bibliodrama. When we put together the positions of the pioneers of Bibliodrama, it turns out that it has thre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body, interaction, and the empty space of the Bible.

The body refers to the personality of learners participating in the Bibliodrama. They are not passive participants, but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nts. Interaction is realized through the dramatic way of Bibliodrama. Bibliodrama aims for a dynamic process in which hermeneutical interaction occurs. The empty space of the Bible, which Bibliodrama pays attention to, allows us to understand why the Bible is not a fixed word but a living word that is still heard today. In order to understand the Bible as the content of education, Bibliodrama liberates the text that is fixed in a literal way and gives life by paying attention to the empty space of the Bible and reading it slowly.

《 **Keywords** 》

Bibliodrama, Bibliolog, Midrash, Bible didactics, Triadic structure of bibliodrama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